

# 민주당 전남 기초단체장 경선 ‘현역 강세’ 재확인

## 15곳 중 8곳 확정...나주·광양·영암·해남 등 현직 본선행 여수·무안 등 결선·본경선 이어져... 추가 경선 10일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현직 단체장 중심의 강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 결선과 본경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1차 결과만 놓고 보면 기존 행정 경험과 조직 기반을 앞세운 현직들이 유리한 구도를 형성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5개 지역의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8개 지역은 후보가 확정됐고 나머지 지역은 결선 또는 본경선으로 이어지며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후보가 확정된 지역은 2인 경선이 치러진 목포·나주·광양·영암·강진·진도와 다자 경선 일부 지역이다. 목포는 강성희, 나주는 윤병태, 광양은 정인화, 영암은 우승희, 강진은 차영수, 진도는 이재각 후보가

각각 공천을 받았다. 해남에서는 명현관 후보가 3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하며 결선 없이 본선 진출을 확정했고, 신안에서도 박우량 후보가 5인 경선을 뚫고 과반 득표로 후보로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현직 단체장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윤병태 나주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등은 모두 경선에서 1위를 기록하며 본선 진출권을 확보했다. 기존 균형 운영 성과와 인지도, 조직 기반이 결합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승부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장흥은 권대수·김성, 화순은

임지락·윤영민, 담양은 박종원·이규현 후보 간 결선이 예정됐고, 장성 역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김한중·소영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본경선으로 이어진 지역에서도 현직 중심의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여수에서는 김영규·백인숙·서영학·정기명 후보가, 완도는 신의준·우홍섭·지영배 후보가, 무안은 김산·나광국·이해자·최옥수 후보가 각각 본경선에 올라 경쟁을 이어간다. 이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김한중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등 현직 단체장들도 결선 또는 본경선에 포함되며 재선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경선 판세 전반을 보면 ‘현역 프리미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임 기간 축적된 인지도와 지역 조직력, 권리당원 기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선 구도 자체가 현직에게 유리하게 형성됐다는 것이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와 일 반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는 국민 참여경선 방식이 조직력이 강한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광주 지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앞서 진행된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는 현직 구청장이 출마하지 않은 복구를 제외한 4개 구에서 모두 현직

이 승리하며 공천을 확보했다. 지역 정치 권에서는 광주·전남 전반에 걸쳐 현직 중심의 안정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남은 경선 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순천·곡성·구례·함평·영광·고흥·보성 등 7개 지역은 8일부터 9일까지 경선을 진행한 뒤 10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당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 있다”며 “남은 경선도 도민과 당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8일 해남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구상을 제시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8일 광주 서구 동천동 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 “소상공인 정책을 단순 지원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 “해남 ‘AI’·강진 ‘K-관광’·화순 ‘바이오’개발”

김영록, 지역별 특화공약 발표... 지지세 확보·표심 공략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해남·강진·화순을 잇따라 방문하며 지역별 특화 공약을 내놓고 표심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 무안·목포·영암 방문에 이어 이틀째 이진현 현장 행보다.

김 예비후보는 8일 해남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구상을 제시했다. 국가 AI컴퓨팅센터와 GPU 1만 5000장 규모 클러스터를 2028년까지 구축해 AI 연구기관과 스타트업이 집적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태양광 5.4GW, 서남권 해상풍력 11.7GW와 연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화원산단 해상풍력 전진기자와 구상도 포함했다. 이를 기반으로 해남을 AI와 재생에너지가 결합된 미래 산업 도시로 키우고 인구 유입까지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강진에서는 관광 중심의 지역 성장 전략을 내세웠다. 월출산과 가우도, 강진만, 마량항을 축으로 병영성, 다산초당, 고려청자요지, 영랑생가를 잇는 남해

안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진만 국가해양생태문화정원 지정과 가우도 생태공원 조성, 2032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 유치 추진 등을 통해 고려청자를 글로벌 콘텐츠로 육성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화순에서는 바이오 산업과 생태관광을 결합한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연구·임상·생산이 연계된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첨단약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화순탄광 부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산업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전환해 신규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지역별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시민과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특별시를 실현할 책임자로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민형배, 골목상권 활성화·골목산업 전략 발표

서구 동천동 골목형상점가 방문...글로벌상권 30개 등 목표 제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육성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민 예비후보는 8일 광주 서구 동천동 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 “소상공인 정책을 단순 지원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골목상권을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기반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생활권 상생상권 전략’과 ‘골목산업 전환 전략’을 통한 골목상권 육성 정책을 제시했다.

반경 500m 생활권 단위로 상권을 재편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공공배달망을 연계하는 통합 소비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후보는 “광주 서구에서 골목형 상점이 지정 이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크게 늘고 수십억원 규모의 소비 유입 효과가 확인됐다”며 “이 모델을 광주 전역과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상권 운영 방식도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생활권 상생위원회’와 상인 중심의 ‘자율상권조합’을 통해 정책 기회부터 실행, 평가까지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골목상권의 산업화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민 후보는 5년 내 글로벌상권 30개, 로컬 브랜드 1000개, 청년 창업 5000개, 골목산업 일자리 5만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며 “골목을 브랜드, 창업, 관광, 투자가 결합된 산업 공간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빈 점포 문제와 렌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해서는 공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전략 업종을 유치하고, 공공임대사가 확대와 상생협약을 통해 임대료 부담과 급등 문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민형배 후보는 “상권 활성화의 핵심은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이고, 제1의 방법은 콘텐츠다”며 “각 상권의 특징적이면서 합리적인 콘텐츠 체계를 만들어 고객을 끌어들이면 좋겠고, 지방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민주 광주 북구청장 결선 투표 신수정 vs 정다운 ‘맞대결’

여성 후보 간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는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후보를 뽑기 위한 결선 투표가 8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 북구청장 후보를 뽑기 위한 결선이 이날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결선에서 맞붙는 후보는 신수정 후보와 정다운 후보다.

투표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1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8일과 9일에는 권리당원 ARS 투표가, 10일에는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된다.

최종 결과는 두 투표로 각각 50%씩 반영해 결정되며, 결과는 10일 오후 11시 30분 발표될 예정이다.

두 후보는 각기 다른 이력과 공약을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신수정 후보는 광주시의회 첫 여성 의장을 지냈으며, 기초의원 3선과 광역의원 2선을 거친 정치 경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광주역 도심속 전환과 AI 생활도시 조성, 주민참여형 정책 시스템 도입,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노년층 지원 정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다운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시민사회와 중앙당을 두루 경험한 점을 앞세우고 있다.

지역일자 반값 임대료 지원, 지역 경제 회복, 대학가 활성화,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추진, 북구청 공유 주택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결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김주영 후보 등과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6·3 지방선거 브리핑

#### 박병규 “공공생리대 사업 전국화 환영”

민선 8기 광산구 정책...안내지도 도입 등 공약

더불어민주당 박병규 광산구청장 후보(사진)가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생리대 사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박 후보 캠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리대를 비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복지 사업이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생리대 사업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캠프 측은 “광산구는 민선 8기 ‘비상용 생리대 지원사업’의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에 만 약 1만5600개의 생리대를 지원했



박병규 광산구청장 후보(사진)가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생리대 사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박 후보 캠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리대를 비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복지 사업이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생리대 사업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캠프 측은 “광산구는 민선 8기 ‘비상용 생리대 지원사업’의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에 만 약 1만5600개의 생리대를 지원했

다”고 언급했다. 광산구는 현재 구청과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등 총 12개소에 25대의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만족도 조사에서는 이용자의 88%가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프 측은 만족도 조사를 정책에 반영해 ‘비상용 생리대 지원사업 2.0’을 공약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설치 장소 확인을 위한 디지털 안내지도 도입, 이용자 요구에 맞춘 공급량 확대, 공공장소 추가 설치 등이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 혁신당 1호 단체장 정철원 군수, 재선 도전

“중단 없는 담양 발전, 담양 군민과 함께 완성하겠다”

조국혁신당 1호 지방자치단체장인 정철원 담양군수(사진)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정 군수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중단 없는 담양 발전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자 한다”며 “지난 1년이 기반을 다진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담양의 미래를 완성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 위기 속에서도 담양은 체류형 관광과 산업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제는 멈춤 없이 추진해 반드시 성과로 완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출마선언은 “다시 한 번 정철원, 군민과 함께 라는 슬로건 아래 행정의 연속



정철원 담양군수(사진)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정 후보는 책임 기간 주요 성과로 전남 생활인구 1위 달성, 집중 호우 대응 1000억 원 규모 재해 대응 기반 구축, 산단 중심 기업 유치와 6차 산업 기반 조성, 재정정상화 추진 등을 제시한 뒤 “담양군정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는 핵심 공약 5대 전략으로 생활인구 100만 시대, 관광객 2000만 시대와 자립경제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보육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부자 담양’, 향촌형 복지 도시 완성을 제시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성과 실행력을 강조하는 자리로 진행했다.

정 후보는 책임 기간 주요 성과로 전남 생활인구 1위 달성, 집중 호우 대응 1000억 원 규모 재해 대응 기반 구축, 산단 중심 기업 유치와 6차 산업 기반 조성, 재정정상화 추진 등을 제시한 뒤 “담양군정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는 핵심 공약 5대 전략으로 생활인구 100만 시대, 관광객 2000만 시대와 자립경제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보육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부자 담양’, 향촌형 복지 도시 완성을 제시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 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탈당...무소속 출마

오늘 출마 기자회견 예정...선거 전략 등 입장 밝힐 것

강진원 강진군수(사진)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출마에 나선다.

강 군수는 “8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선관위에 무소속 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 불법 당원 모집이 적발돼 자책정치 6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강 군수는 징계 결의 효력정지 가져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고 당 지도부를 상대로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당내 경선 진입이 불발되자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틀며 본선 경쟁에 나서게 됐다.

강 군수는 9일 강진읍 오감동에서 출마



강진원 강진군수(사진)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출마에 나선다. 강 군수는 “8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선관위에 무소속 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 불법 당원 모집이 적발돼 자책정치 6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강 군수는 징계 결의 효력정지 가져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고 당 지도부를 상대로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당내 경선 진입이 불발되자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틀며 본선 경쟁에 나서게 됐다. 강 군수는 9일 강진읍 오감동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선거 전략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 전남도당은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 나선

김보미·차영수 후보 중 차영수 후보를 강진군수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오병석 전 농림부 차관보는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 차 후보와 무소속 강 군수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현직 군수이자 정경다리 4선에 도전하는 강 군수가 조직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무소속 출마에 나서면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차 후보와의 맞대결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